

# 북미의 영어 시조 창작과 연구

박진임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A Study of Sijo Prosody and Sijo in English in North America

Jinim Park  
Pyeongtaek University  
micalber@gmail.com

## Abstract

Sijo is a uniquely Korean poetic genre, which is often understood and explained vis-a-vis Japanese Haiku. As much as Haiku became popular in North America, Sijo started to gain recognition since 1990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aesthetic values of Sijo written in English, with focus on two North American poets: Elizabeth Saint Jacques and David McCann.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prosody of Saint Jacques because it explains how the poet understood the nature of Sijo. This paper also analyzes Sijo texts written by Saint Jacques and McCann.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poetic closure of their texts. As is known, the closure in the final line of Sijo is often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the text. By employing such elements as wit, twist, and strong emotional expression, the closure reaches textual fruition and determines its degree of success. Saint Jacques and McCann provide exemplary Sijo texts in English,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elegance of poetic closure.

## 1. 서론

한국 고유의 운문 양식인 시조는 해외에도 소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영어로 시조를 쓰는 시인들이 생겨나 영어 시조 창작집도 간행되었다. 최근에는 영어 시조와 관련된 포럼이나 세미나등이 미국의 대학과 문학 동호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미의 영어 시조 시인 중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와 데이비드 맥켄의 영어 시조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 시조의 특징을 살피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특히 세인트 자끄는 창작 시조집에서 고유의 작시법을 밝히고 있어 그의 작시법을 분석하고 창작의 실제와 비교 검토한다. 세인트 자끄의 영어 시조은 미학적 완성도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

에 값한다. 맥켄의 경우 시조 연구자이며 번역자로 활동하다가 영어 시조 창작에 이른 경우이다. 맥켄의 경우는 영어 시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한다.

## 2. 북미의 영어 시조 시인 개관

시조는 일본의 하이쿠와 종종 대비되곤 한다. 일본의 하이쿠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이제 영어로 하이쿠를 쓰는 시인의 수는 매우 많다. 영어 시조가 북미에서 등장한 것은 하이쿠의 역사와 대비해볼 때 한국의 시조 또한 일본의 하이쿠처럼 문화적 충격을 서구 사회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미의 영어 시조 작품집으로는 모두 4권이 존재한다. 1995년 캐나다의 엘리자베스 세인트 자끄 (Elizabeth St. Jacques)의 『빛의 나무 주위에서 *Around the Tree of Light*』, 1995년 김운송 (Un-song Kim)의 『현대 시조 *Poems of Modern Sijo*』, 2007년에 발간된 린다 수 박(Linda Sue Park)의 『지붕 위의 탭댄스 *Tap Dancing on the Roof*』, 2008년 데이비드 맥켄(David McCann)이 출간한 『도심의 절간: 전환과 직설의 시조 *Urban Temple-Sijo, twisted and straight*』가 있다.<sup>1)</sup>

## 3. 영어 시조의 이론 모색

먼저 세인트 자끄가 시조의 특징으로 이해한 바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세인트 자끄의 작시법과 아울러 검토해보자. 창작 시조집 『빛의 나무 주위에서 *Around the Tree of Light*』의 「서문 (forward)」에서 세인트 자끄는 시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시조는 45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3행의 시이다. 각 행은 14~15음절로 구성되는데 1행은 문제의식이나 주제를 드러내고 2행은 그를 발전시키거나 생각의 전환을 보여준다. 3행은 처음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거나 주제를 정리한다. 3행 혹은 종장의 전반부는 전환을 보여주는데 의미나 소리, 어조나 혹은 다른 장치 상에서의 놀라움을 통해 그 전환을 드러낸다. 성공적인 시조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위트나 심오한 발견이나, 강한 정서적 종결이 작품 내에 존재해야 한다 (12면).<sup>2)</sup>

요약하자면, 세인트 자끄에 따르면 시조는 3행으로 이루어지고 각 행은 보통 14 혹은 15 음절로 구성된다. 초장인 1행에서는 주제나 문제의식이 제시되고 중장, 즉 2행에서는 일종의 ‘전환’이 나타난다. 종장인 3행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주제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종장의 전반부는 ‘반전’을 보여주어 독자에게 놀라움을 선사해야 한다. 세인트 자끄는 종합적으로 성공적인 시조의 특징을 요약한다. 텍스트에 나타난 시인의 생각이 참신하거나 텍스트가 깊이 있는 관찰을 보여주거나 강한 감정적 고양으로 마무리되거나 할 때 성공적인 영어 시조가 가능하다고 본다. 세인트 자끄 시조는 종장에서 시상의 전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세인트 자끄는 종장에서 의미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조 작시법의 덕목을 창작의 실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세인트 자끄의 영어 시조는 앞으로의 영어 시조 창작의 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제 데이비드 맥켄의 경우를 살펴보자. 맥켄의 텍스트 또한 종장에서 전환을 잘 보여주는 편이다.

#### 4. 영어 시조 창작의 예

맥켄의 「길을 잃고: Lost」 는 서경과 서정의 결합이라는 시조의 구성 원리를 잘 파악하고 성실하게 실현한 텍스트이며 종장에서 전환과 위트를 구현하고 있는 성공적인 영어 시조라고 볼 수 있다. 맥켄이 창작 초기에 쓴 영어 시조와 비교하면 매우 발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시조를 연구하고 창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맥켄은 종장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초기 시조를 통해 그 점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맥켄은 자신의 첫 시조라고 밝히며 「첫 시조: 안동의 어느날 밤」을 발표했는데 영어와 한글판을 동시에 자신의 시조집 *Urban Temple: Sijo, Twisted & Straight* 에 수록하고 있다. 시조의 핵심을 사상이나 정서의 반전에서 찾고 있으며 시조 형식에 있어서의 종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의 텍스트를 통하여 시조의 형식이 3행, 6행 혹은 5행으로 다양하게 표기될 수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각 행, 즉 초, 중, 종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든 간에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행의 배열 방식은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음절 수 규정의 문제이다.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가 판이하므로 음절 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창작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영어 시조 창작의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린다 수 박이 작시법에서 소개한 ‘강세 음절’의 개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인트 자끄와 맥켄의 창작 텍스트는 대부분 한 행에서 15음절, 그리고 텍스트 전체에서는 총 45음절 내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인다.

#### 5. 결론

시조는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과 한국어 고유의 언어 미학적 특성을 살린 운문 형식이다. 초, 중, 종장의 구성 원리 또한 발단, 전개, 전환과 종결이라는 3단계의 사유와 심상의 전개과정에 잘 부합한다. 그런 시조가 영어를 통하여 창작될 때에는 한국어로 창작된 시조와는 일정한 차이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세인트 자끄와 맥켄은 영어 시조 창작시 활용해야 할 필수적 조건으로 형식적 간결성과 종장에서 드러나는 전환이라는 두 가지를 선택했다. 전자인 간결성을 위해 텍스트의 음절이 45자를 크게 넘지 않도록 하였고 후자인 전환 요소는 위트등을 활용하면서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어 시조는 다른 창작자들이 모델로 삼을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미에서 영어 시조 창작이 더 활발해짐에 따라 그들의 선구적 역할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